

허리, 무릎 **아플** 때?

척 / 하 / 면 / 생 / 각 / 나 / 는
분당척병원

www.chukmedical.com



분당선 야탑역 ①번출구 **1599-7500**

2014년 가을호
www.chukmedical.com

Vol. 20

척병원 뉴스레터
분당척병원

특집기사

환자 추천지수
87% _04p

완쾌환자 인터뷰

“나사 박는
수술을 안하고
주사 치료만으로
완쾌 했습니다”

10p

분당  척병원

치료를 받아보면 알게 됩니다. 왜 모두들 분당척병원이라 그러는지...

치료를 받아보면 알게 됩니다.
왜 모두들 분당척병원이라 그러는지...

확실히 치료를 잘 한다고,
시술이든 뭐든 믿음이 간다고,
온 가족을 맡겨도 될 만큼이라고...

“주사치료 한 번 해봅시다”라는 얘기에
온 가족이 얼싸 안고 울었습니다.

모든 병원들이 수술해야 한다고 했는데
포기하는 심정으로 척병원에 왔는데
기적과 같은 소리를 듣는데
저절로 눈물이 터졌습니다.

환자들이 소개하고 싶어하는 병원
그런 병원으로 계속 남겠습니다.

www.chukmedical.com

Chukspine Hospital

CONTENTS

2014년 가을호

- 2p 캠페인
치료를 받아보면 알게 됩니다.
- 4p NPS특집기사
환자 추천지수 87%
- 6p 진료실 이야기
방긋방긋 웃으시니 좋습니다.
비수술치료센터 서소진 원장님
- 8p 완쾌환자 인터뷰
'아, 이제는 나았구나' 싶었습니다
분당척병원의 열렬한 팬 박창문님
- 10p 완쾌환자 인터뷰
수술 취소하시고
분당척병원에 오셔서
비수술 치료로 완쾌하신 최명수님
- 12p 의료상담
10년 전 수술받은
무릎이 다시 아픕니다.
- 14p 뉴스
- 15p 의료진 소개

Chukspine Hos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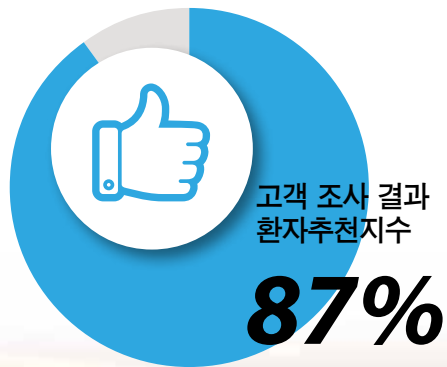
Newsletter Vol. 20

발행일. 2014년 9월 19일
편집인. 분당척병원 마케팅실
디자인. 디자인한

환자가 추천하고 싶은 병원, 분당척병원

조사결과 고객추천의향이 무려 87%가 넘게 집계되어

지난 5월, 분당척병원에서 수술 또는 치료받은 환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분당척병원을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실 의향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87%의 환자들이 분당척병원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분당척병원 장상범 대표원장은 “이번 조사로 분당척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며 “좋은 병원은 환자가 먼저 알아보는 만큼 친절한 설명과 본연의 치료에 충실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분당척병원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보완해야 할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분들께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Q 척추치료,
무엇이 마음에 드셨나요?

A 5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다가
분당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결과가 너무
좋아서 적극 추천해요.
▶▶▶ 용인 배○○님

Q 관절 수술 후
어떻게 지내시나요?

A 무릎 수술하고 경과가 좋아서
행복해요. 한 달 후에 외출도
할 수 있었어요.
▶▶▶ 성남 조○○님

A 어머니 수술이 잘 돼서
집사람과 매제도 수술했어요.
모두 만족해 만점이에요.
▶▶▶ 전남 강진 마○○님

Q 분당척병원의 비수술치료,
어떠셨나요?

A 다른 병원에서는 병명도
몰라서 고생했는데 분당척병원
와서 진료받고 한 번에 답이
나왔어요. 완쾌돼서 너무 좋고
만족해요. ▶▶▶ 울산 북구 최○○님

A 엄마 연세를 생각해서 수술을
강요하지 않고 비수술을
진행하신 점, 이상우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에 신뢰가 갑니다.
▶▶▶ 부산 황○○님

Q 도수재활운동치료
어떤 부분에 만족하셨나요?

A 도수치료하시는 분이 호전되는
과정도 잘 체크해주시고 물음에
친절하게 답변을 잘해주셨어요.
운동요법을 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좋았습니다.
▶▶▶ 성남 윤○○님

A 치료받고 지금은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늘 친절하고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웠어요.
▶▶▶ 성남 박○○님



D 비수술치료센터 서소진 원장님

“죽고 싶다”는 말씀 대신 방긋방긋 웃으시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수술치료센터 서소진 원장입니다. 여든을 훌쩍 넘기신 노부부가 함께 진료실을 찾아와 할머니의 다리 통증에 상담하시고 진료를 받으셨는데요. 이젠 함께 운동도 다니시며 3개월에 한 번씩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러 오십니다. 건강해지신 모습을 뵈 때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작은 체구의 노부부가 등산복 차림에 등산용 스틱을 하나씩 쥔 채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엉치통이 심해요. 며칠 전 약을 먹었는데도 듣질 않아요.” 아버님께서 어머니 증상을 대신 설명하십니다. 어머니는 팔십을 바라보는 분이셨고 아버님은 더 드셔 보입니다. 엉치가 아파 집 근처에 있는 의원에 갔더니 점액낭염이라고

듣고 약만 드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주사 치료를 할 테니 경과를 보고 좋아지지 않으면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주일 뒤, 지난주처럼 두 분께서 등산복 차림으로 나란히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좀 어떠세요?” “엉치통은 좋아졌는데 다리가 땅겨서 걷기가 힘들어요.” 이번에도 아버님께서 설명하고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십니다.

척추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약을 좀 더 먹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일주일 지나고 어김없이 두 분이 등산복 차림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버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아파서 밤마다 울어요”

“헉!! 우신다고요? 아버님, MRI 검사를 꼭 해봐야겠습니다.”

“MRI를 꼭 찍어봐야 하나요?”

MRI 찍는 비용 때문에 아버님은 많이 망설입니다. 어머니의 정확한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검사라고 아버님을 설득합니다.

두 분께서는 제 소견을 믿고 따라와 주셨습니다. MRI를 찍고 터진 디스크로 병변이 확인되어 FI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증상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은 어머니 혼자서 진료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아파요. 요즘은 살 맛도 없고 그냥 죽고 싶어요.”

아프실 때도 늘 조용히 미소 짓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죽고 싶다니 왠지 이상합니다. 진짜 아파서 그런 것인지 다른 이유는 없는지, 어머니를 내보내고 아버님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요.” 고부 사이의 갈등이 어머니의 통증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두 분이 등산복을 즐겨 입으신 듯 한데 등산을 즐겨 하시나요?”

“아니예요. 그냥 입고만 다닐 뿐이에요. 스

틱은 지팡이 대신하는 거고.”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아프다는 이유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며느리와 사소한 것에도 갈등이 있으셨나 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프시다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 두 분이 집 근처라도 자주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삼아서 천천히 걸으시면 어머니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집에서 며느님하고 부딪칠 일도 줄어들 테고요”

제 처방이 맞았을까요?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더는 죽고 싶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의 미소도 되찾으셨고요. 여전히 등산복에 스틱을 쥐고 요즘은 3개월에 한 번씩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러 오십니다. 제가 보기엔 두 분이 그 연세 혼자서 아니라 둘이어서 더욱 좋아 보이는 거 같습니다. 바늘 가는 데 실 가듯 오래도록 함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FI 치료



FI 치료는 디스크질환 및 척추관협착증 치료에 많이 시행되는 치료법으로 MRI 검사로 통증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를 찾은 후 주사를 통해 예민해진 통증 조직을 안정시킨 후 신경부종을 가라앉히고, 근육조직에 자극을 줘 척추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수술실에서 나오는 순간 ‘아! 이제는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진주에서 올라오신 박창문 환자(73세, 남) 부인을 도와 시장에서 일을 하다 허리에 병이 나서 1년 가까이 고생하신 분입니다. 분당척병원에 오셔서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허리는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기 시작한 건가요?

지난해 11월부터 허리 통증과 우측 허리 밑에 다리가 당기고 찢듯찢듯하여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작년부터 아내 일을 도와주려고 쪼그려 앉아 일을 하다 보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효력이라곤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들이 올라오라고 하기에 용인으로 가 딸이 소개해준 분당척병원에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5월 28일에 수술을 받고 나오니 통증과 저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아, 이제는 나왔구나”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하는 중에도 장상범 원장

님은 누워 있던 저에게 와서 악수를 건네시며 “수술이 잘 돼서 축하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수술 전에도 불안해하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곤 웃으며 걱정 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따스한 말 한마디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분당척병원에 오기 전에 다니던 병원 있으셨나요?

한의원도 다니고 대전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총 세 번의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주사를 맞은 당일만 잠깐 괜찮고 다음날이면 다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분당척병원에 와서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했고, 결과를 보신 원장님은 협착증이 생겼으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으면 부담되고 두려웠을 텐데 분당척병원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진주에 내려와 짐을 싸서 수술 날짜에 맞춰 올라왔습니다. 수술 전에는 허리와 다리가 심하게 아프고 저렸는데 수술하고 나오니 정말 신기하게도 통증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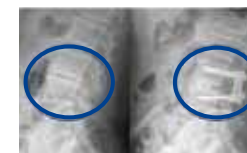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취미생활은?

9년 전부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도 익숙하게 배워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같은 SNS로 학원사람들과 소통하며 허리 아플 땐 꼭 분당척병원에 가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분당척병원 장상범 원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커서 원장님과 진료실에서 찍은 사진을 프로필로 올려두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자발적 홍보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척척” 치료 Story



MRI 수술 전(왼쪽)후



X-ray 수술 전(왼쪽)후

주치의 장상범 원장

박창문님은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 엉치 다리가 당겨서 바로 눕지도 잘 걷지도 못하던 분입니다. 천식 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주사 치료를 해왔으나 호전이 없어 본원에서 최소절개 유합술인 2X2 고정술을 통해 완치되었습니다.

- ▶ **진단명** : 제3-4요추간 우측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척추 불안정증
- ▶ **수술명** : 제3-4요추간 우측 척추체간 골유합술 및 나사고정술

나사 박는 수술을 안하고 주사 치료만으로 완쾌했습니다



멀리 마산에서 건설 일을 하시던 최명수 환자(51세, 남) 마산 지역의 한 병원에서 나사 박는 수술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수술 3시간을 앞두고 병원을 뛰쳐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물어 물어 간 곳이 분당척병원이었습니다. 분당척병원 원장님의 “주사 치료를 한 번 해봅시다”라는 말에 온 가족이 얼싸안고 안도의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그 기구한 사연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마산에서 분당척병원에 오기까지

한 달 전부터 허리가 살살 아프더니 점점 허벅지까지 당겨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도 별 효과가 없어 척추 전문병원을 찾아갔습니다. MRI를 찍고 여러 검사를 하더니 척추측만증과 디스크라며 척심 2개를 박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 날짜까지 잡았지만, 의사에게 믿음이 가지 않았고 검사도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하는 것을 보니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만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수술 전날 저녁, 부인과 첫째 딸이 내려왔기에 “아무래도 수술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내일이 당장 수술인데 무슨 소리냐며, 부담 갖지 말고 수술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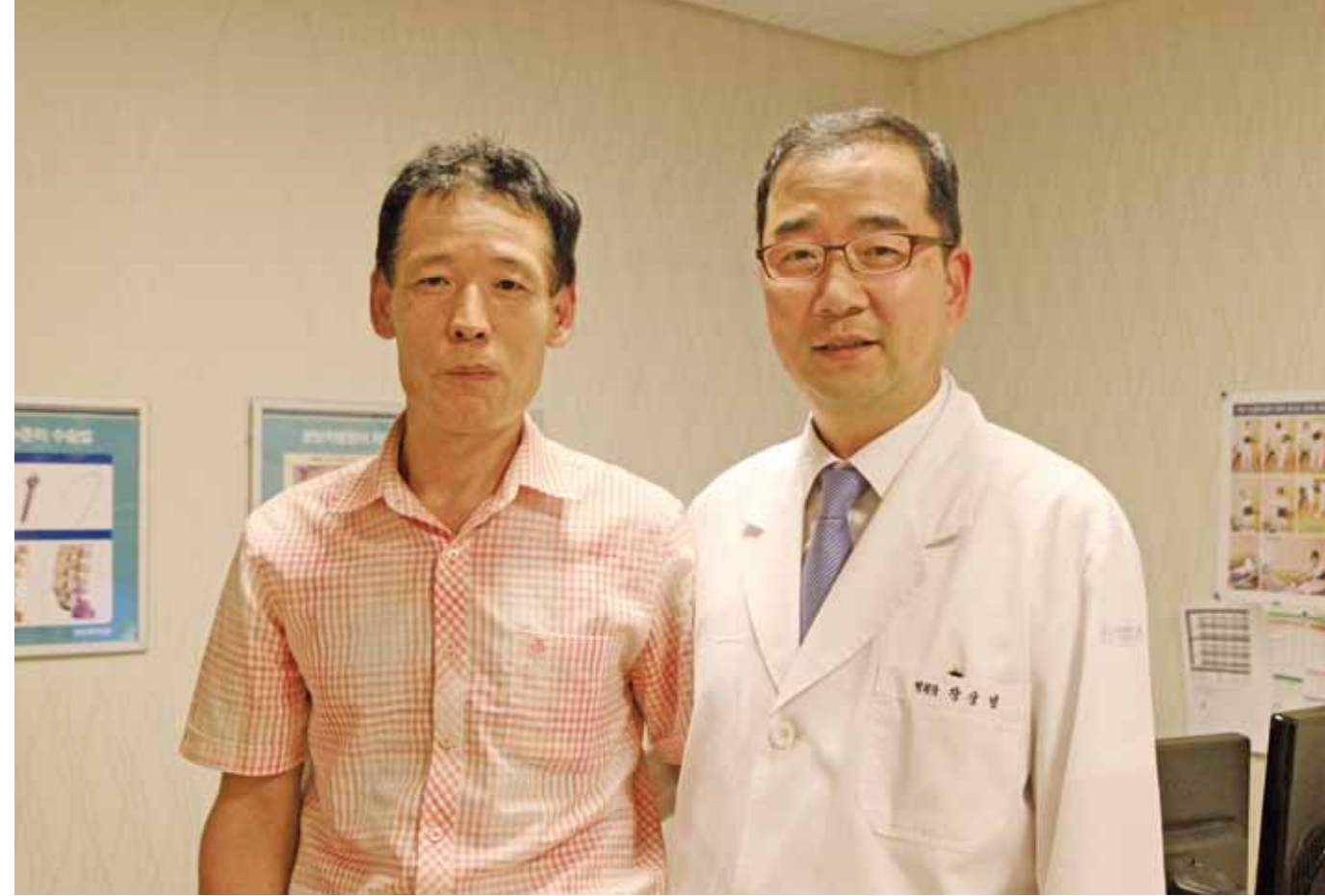
수술 당일인 다음날 아침,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수술 3시간 전에

가족들과 병원에 말한 뒤 수술을 취소하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딸이 친구에게 물어보니 분당척병원이 잘 고친다며 추천했다는 말을 듣고는 “수술을 받더라도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족들의 눈물

딸 친구가 소개해 준 장상범 원장님께서 내 상태와 MRI를 보시더니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 FI주사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족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의 가장인 내가 허리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걸으론 표현을 안 했어도 속으론 큰 걱정이었는데,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대해준 분당척병원

1차 주사 치료를 받고 집에 갔을 땐 허벅지 쪽이 약간 당기더니 다음날 괜찮아졌고 이전보다 걸을 때 통증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2차 주사 치료를 받고 나서는 2시간 걸어도 괜찮을 정도로 좋아져 많이 호전되었다 싶었습니다.

경과를 보러 병원에 가니 원장님께서 이제 약만 잘먹으면 마산으로 내려가서 다시 일을 해도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디스크도 ‘수술 없이 비수술로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라는 것, 이렇게 영리목적이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해주는 원장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척척” 치료 Story



주치의 장상범 원장
정확한 척추 진단의 중요성!
최명수님은 위에 사진처럼 기존에 허리 4-5번 협착증이 있으나 아무 증상 없이 잘 지내왔으므로 수술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아팠던 원인은 아래 MRI 사진에서 보이는 요추 2-3번의 터진 디스크인데, 크기가 작고 말랑말랑한 조직이라서 수술하지 않고, 허리 FI주사 치료 2회로 완치되었습니다.

10년 전 수술 받은 무릎에서 다시 통증이 느껴집니다



Q 울산에 사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2004년 여름 즈음에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늘어난 상태로 생활하다가 관절부가 찢어지고, 찢어진 관절 탓에 뼈도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내시경으로 찢어진 관절을 봉합하고 손상된 뼈의 날카로운 부위를 갈고, 뿔조각을 제거하고 인대를 축소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아무 문제없이 지내다가 작년부터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무릎 바깥쪽이 당기는 듯 아프고 손으로 눌러도 통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도 무릎이 아팠습니다.**

작년 11월 울산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을 권하기에 더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자 이렇게 상담을 글을 올립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관절센터 원장 윤영선입니다.

환자분의 상담 글로 미루어보아 현재 무릎의 쿠션 역할을 하는 두 개의半月 연골판 중에 외측半月 연골판의 대부분이 소실되어 무릎 외측의 초기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전 무릎 수술 당시 연골판 손상이 심해 불가피하게 외측半月 연골판을 많이 제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드문 상황은 아닙니다.

그 외에 십자인대, 내측半月 연골판, 내측 연골, 내측과 외측 측부 인대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외측의 관절염이 더 진행되기 전에 외측半月 연골판 이식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4년 당시는半月 연골판 이식술이 세계적으로 조금씩 시작되고 있던 시기라 의사

66
외래로
내원하시면
환자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

들이 권유할 만큼 대중적인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현재는半月 연골판 이식술이 성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관절염 예방 기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무릎 X-ray를 촬영하여 환자분에게 크기가 맞는 연골판을 구해야 하므로 수술 결정 후 최소 1~2주 후에 수술이 가능한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짧은 답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외래로 내원하시면 환자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 관절센터 윤영선 원장



디스크와 관절 질환 궁금증을
'척척' 해결해 드립니다.

가벼운 통증에서 심각한 마비 증상까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디스크와 관절 질환의 궁금증을 가볍게 해소해드립니다. 분당척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한 전문의 상담으로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과 1:1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www.chukmedical.com





2014 완쾌환자 초청의 밤

분당척병원은 지난 6월 13일 야탑동 새천년웨딩홀에서 600여 명의 환우분들과 가족이 함께한 완쾌환자 초청의 밤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완쾌환자 초청의 밤 행사는 분당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한 환자들을 축하하며 소통하는 자리로 7년째 꾸준히 진행하여 환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분당척병원 페이스북 오픈!

분당척병원이 환우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페이스북을 오픈하였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분당척병원의 소식과 건강 정보 제공,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분당척병원 페이스북' 혹은 www.facebook.com/chukmedical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분당척병원 건강강좌

9월5일, 9월12일 두 번에 걸쳐 분당태원고등학교에서 척추 측만 및 심폐소생술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척추센터 한광욱 원장이 성장기 척추 측만에 대한 강좌를 진행했고, 2부에서는 김명진 수간호사가 심폐소생술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채완 원장의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의료지원과 도수재활운동센터 임태현 운동치료사와 함께 했던 성남수정복지관에서의 '올바른 운동 관리법'에 대한 건강강좌 또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분당척병원은 꾸준히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척추도 척척! 관절도 척척! 분당척병원

당신의 평생주치의, 척추·관절 치료의 대표의사들을 소개합니다.



대표원장
장상범



척추정형외과 원장
박건우



척추신경외과 원장
배채완



척추신경외과 원장
한광욱



척추정형외과 원장
김남훈



관절정형외과 원장
윤영선



관절정형외과 원장
박종석



관절정형외과 원장
양병세



비수술치료센터 원장
김환희



비수술치료센터 원장
우상우



비수술치료센터 원장
서소진



비수술치료센터 원장
정지훈



내과 원장
김경택



영상의학과 과장
이주현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조옥현

- | | |
|------------------|---|
| 척추센터 |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척추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골절 |
| 관절센터 | 무릎관절염, 퇴행성관절염, 어깨관절질환, 고관절질환, 오십견 |
| 비수술치료센터 | 척추비수술치료, 관절비수술치료, 허리/목디스크, 척추협착증, 만성요통 |
| 내과(가정의학과) | 당뇨·혈압 등 만성질환, 비만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고지혈증, 소화기질환 |

월~금: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 토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
www.chukmedical.com 예약상담: 1599-7500

